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FOR SPRING

vol.132

차茶의 시간, 봄날을 음미하다

너그럽고 포근한 계절입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음미하는 시간, 한 잔 차의 온기가 양손으로 전해지며 마음을 데웁니다. 그윽한 향기가 퍼지면 머릿속에 자리했던 온갖 상념은 저만치 달아납니다. 봄날의 찻잔 속에 봄꽃이 있습니다. 찻잔 속에 봄꽃이 피어납니다.

글 박지영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CONTENTS

2 찰나의 계절 차茶의 시간, 봄날을 음미하다

SPECIAL THEME, 홈 가드닝

6 SPECIAL THEME 01 안녕, 나의 고무나무
8 SPECIAL THEME 02 홈 가드닝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12 SPECIAL THEME 03 식물 가득한 공간으로 가자
16 SPECIAL THEME 04 일상에 정원을 들이는 방법

사람과 건강

20 건강 읽기 봄철 안과 질환 가이드
22 인하포커스 인하대병원 로봇수술센터
26 영화와 인생 영화 '시간 여행자의 아내'와 '어바웃 타임'
30 계절밥상 딸기 찹쌀떡과 딸기 퐁듀
32 콧노래 여행 전라남도 순천 여행
38 공간 풍경 신관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인하, 사람

40 인하가 만난 사람 자원봉사자 오정순·김옥회 씨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임자현 대리
44 인하라운지 2019 연탄배달 봉사를 마치고
46 인하이슈 3주기 상급의료기관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
48 톡톡 약물상담 치질치료제
49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50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52 진료안내표

인하대병원보 2019년 봄호(통권 제132호) **발행일** 2019년 3월 15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인하대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지금, 당신의 집을 가드닝하라

우리는 곧잘 짓궂은 일상에 지치지만 가장 사적인 공간, 우리 집에서 다시 용기를 얻어 내일의 삶을 일구어 나간다. 이때, 집 안에 둔 초록 식물은 특유의 싱그러운 기운으로 마음에 위안을 불어넣는다. 요즘처럼 공기가 미덥지 못한 계절, 식물은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도 탁월하다. 당신의 집에 초록식물을 들일 시기다. 봄을 맞아 집 안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홈 가드닝 이야기.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안녕, 나의 고무나무

글 박지영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내게 식물은 곧 '고무나무'이다. '고무나무'와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물 하나를 들여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내 작은 집이 유난히 삭막하게 느껴진 어느 날이었다.

'가드닝' 또는 '식물'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생각을 당장 실행에 옮기려면 꽃집에 들러 비용을 지불하고 잘 다듬어진 화분 하나를 들고 오면 되었지만, 나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본가(本家)에 들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들여 키우는 식물 중 하나를 데려오는 방법을 선택했다.

무릎 정도 높이의 '고무나무' 한 그루를 나의 집에 들여놓으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존재의 의미에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 어느 시인의 시를 떠올렸다. '고무나무'는 '고무고무' '초록이' 등 그렇고 그런 여러 개의 이름이 붙여졌다가, 때로는 이름을 잊은 채로 지내기도 하고, 결국 '나의 고무나무'로 나의 집 거실 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무나무'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다.

'고무나무'는 놀라울 정도로 무럭무럭 성장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키가 자라는 동시에 몸 이곳저곳에 연둣빛 새잎을 틔었다. 넓적한 초록 잎은 더 진하고 튼튼해졌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고무나무'의 몸집을 보며 지금의 화분이 작아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하며 '분갈이'를 염려했다. '분갈이'는 생 초보 가드너에게는 짐짓 두려운 일이다.

'분갈이' 걱정은 기우(杞憂)였을까. '고무나무'에 일이 생겼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인 것 같다. 돌연 '고무나무'가 성장을 멈춘 것이다. 새잎을 틔우기는커녕 잎이 노랗게 변하며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잎이 떨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적도 있다. 마음이 쓰이다 못해 속상했다. 어머니는 "혹독한 계절, 겨울이 가면 다시 자랄 것"이라며 안심시켰지만 내 마음은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뭐가 잘못됐을까……. '고무나무'가 자라는 동안 내가 한 일은 일주일에 단 한 번, 매주 토요일 오전 뿌리까지 젖을 정도로 듬뿍 물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잘 자라던 녀석인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곰곰이 되짚은 결과 겨우 답을 찾아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 햇볕이다. 전에 살던 집은 한 벽면이 통유리로 돼 있던 덕분에 창가에 놓아둔 '나의 고무나무'는 매일 필요한 양만큼의 햇볕을 듬뿍 쬐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맘껏 들이켰다. 환기도 곧잘 시켰기 때문에 햇볕과 물, 바람까지 식물이 자라기 딱 좋은 삼박자가 저절로 갖춰졌던 셈이다. 그런데 이사를 한 집은 앞 건물에 가려져 햇볕을 쬐는 시간이 하루 중 한 시간 남짓으로 줄었다.

식물은 참 욕심도 없다. 값비싼 음식도 아닌 '바람과 햇볕, 물'만 주면 만족하고 뛰어난 성장력을 보이는데 그걸 못해 주었다. 무엇보다 녀석의 성장의 침체가 마음이 아픈 것을 보니 녀석에게 그동안 정情을 듬뿍 주었나 보다. 살아있는 녀석은 숨을 쉬면서 나의 집을 꽃밭이요, 꽃자리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나의 고무나무가 그곳에 있음으로 나의 집을 돌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리라.

〈안녕, 나의 장갑나무〉(주니어김영사)라는 그림책은 소년이 나무를 통해 사랑과 죽음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에는 사람들이 외톨이라고 부르는 소년이 등장한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듬직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500년을 살아온 단단한 아름드리 떡갈나무다. 소년은 떡갈나무에게 '베르톨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만의 나무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소년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베르톨트 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소년은 초록 잎사귀가 가득 달린 베르톨트의 커다란 가지 위에서 아늑하게 누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거나 이웃을 관찰하거나, 둥글게 펼쳐진 마을 풍경을 바라본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또는 작은 화분 하나가 필요할지 모른다. 나무는 봄이 되면 한결같이 새잎을 틔우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고, 그렇게 늘 한자리에 서서 든든한 위로를 건넬 테니까. 묵묵히 수다스럽지 않게 우리의 고단한 생生을 응원할 테니까.

창을 열면 숲이 보이는 집에 살고 싶다. 그리고 결코 내게 등 돌리지 않을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친구 삼고 싶다.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왔다. 사계절 싱그러운 초록 공간, 나의 집을 꿈꾸며 둘도 없는 '나의 고무나무'가 올봄 다시 새잎을 틔우기를 기다려 봐야겠다.

홈가드닝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의 알람 소리에 눈을 떴는가? 어느덧 매일 미세먼지와의 전쟁 속에 살게 된 우리에겐 모든 걸 내려놓고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을 청정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글 유미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도움말** 임종한(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우리 집에 식물이 필요한 이유

집 안에 놓아 둔 초록 식물은 마음에 위안을 주고 싱그러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그래서일까? 집 안에 반려식물을 들이는 사람이 늘면서 점차 홈가드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를 일컫는 '플랜테리어'가 트렌드로 떠올랐다. 사람들의 이런 관심은 우연이 아닌 듯 보인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식물에는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그 능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미국항공우주국 나사(NASA)는 밀폐된 우주선 안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 식물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체에 해로운 오염 물질이 가득한 밀폐 공간에 12개 정도의 식물을 넣어 두었더니 24시간 내에 포름알데히드, 벤젠, 일산화탄소와 같은 오염 물질의 80%가 제거되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그뿐인가. 우주선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역시 집 안에 식물을 두면 적당한 습도 유지와 더불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선인장, 호접란, 다육식물 등은 밤에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침실에서 키우는 식물로 제격입니다.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줍니다."

생각보다 쉬운 식물 키우기

처음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키우기 쉽고 손이 덜 가는 다육식물이나 스파티필름, 스투키 등을 선택하자. 다육식물은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의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는 특징이 있다. 봄철 날씨나 실내의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로 한 달에 1번 정도만 물을 줘도 잘 자란다. 스파티필름은 나사가 공기정화식물 10위로 선정했을 정도로 탁월한 공기정화능력을 자랑한다. 일반 실내 온도인 16~25℃의 환경에서 잘 자라고 봄·가을에는 4~5일에 1회, 여름엔 3일에 1번 정도 물을 주면 되어 관리도 쉽다. 뛰어난 공기정화 능력을 지닌 스투키는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편안한 수면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이온을 방출해 생활 속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아프리카 동부가 원산지인 열대식물인만큼 물은 2주에서 한달 간격으로 주면 된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로 떠오른 플랜테리어는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어 일석이조다.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공간에 따라 적절한 식물을 키우면 그게 바로 플랜테리어다. 스킨답서스, 아펠란트라, 그레이프 아이비 같은 식물은 일산화탄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방에 두면 좋은 식물로 꼽힌다. 로즈마리는 두뇌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음이온을 내뿜으므로 아이 공부방에 놓으면 좋다.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 관음죽이나 테이블 야자는 화장실 등에 놓으면 환경 정화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다.

임종한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겸 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환경정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 교수는 〈아이의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등 많은 환경 관련 저서를 집필하는 등 활발하게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환경의학 전문가이다.

식물과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실내 환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당연히 실외 공기가 실내보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내 오염도 무시할 수 없다. 임종한 교수는 "실내에 의외의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실내 미세먼지 역시 실외 미세먼지처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실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요리할 때 나오는 매연에는 독성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입자가 매우 작아 흡입하게 되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폐암 등 건강에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실내 공기를 깨끗이 유지하려면 오염원을 파악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환기해 실내에서 생겨난 미세먼지를 배출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레인지 후드를 틀어서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레인지 후드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지지 않고, 효율도 떨어지지 않는다.

"환기는 하루 2~3번 최소 10분 이상, 가능하면 오전 10시 이후나 낮 시간대, 바깥 온도가 높을 때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집 안에서 가장 먼 창문을 열어 맞바람이 치게 하고, 환기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할 때 화장실 환풍기나 주방의 레인지 후드, 공기청정기 등을 같이 틀어 강제 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이 큰길가에 위치한다면 낮보다는 저녁에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한 교수의 조언이다.

적정한 습도 또한 먼지를 제거하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임종한 교수는 "실내 적정 습도는 50~60%로 유지하면 좋다. 미세먼지의 분진이 물 분자와 만나 가라앉으면서 분진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되도록 물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호흡기가 좋지 않은 사람은 실내 환기 외에도 음식을 통해 호흡기 건강을 지켜야 한다. 임종한 교수는 호흡기 건강에는 수분섭취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수분을 섭취해야 호흡기의 염증이 가라앉고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는다. 녹차, 유자차, 레몬차, 모과차, 도라지차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서 호흡기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과 같은 견과류의 마그네슘은 기관지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고, 연어와 고등어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D는 면역세포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천식환자는 혈중 비타민D가 낮으면 기침이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지녔다면 비타민D를 섭취해 호흡기 건강을 챙겨야 한다."

식물 가득한 공간으로 가자

봄이다. 초록빛 찬란한 세상 구경을 할 때가 왔다. 식물이 보낸 초록편지를 받아 든 순간 청춘靑春처럼 다시 설렐지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 창경궁 대온실, 경기 과천에 위치한 라이프스타일 농장 마이알레, 가까운 인천의 로즈스텔라 정원에서 올봄, 초록빛 식물을 만끽하자. **글** 유미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촬영 협조** 창경궁 대온실, 마이알레, 로즈스텔라 정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 창경궁 대온실

온통 투명한 유리온실은 멀리서도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창경궁 안에 위치한 대온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로 1년여의 보수공사를 거쳐 2017년 11월 다시 개방했다. 동양식 온실이 식물 배양과 재배 중심인 반면, 서양식 온실은 대부분 전시와 오락 공간을 겸한다. 창경궁 대온실은 바닥 면적이 약 160평으로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1909년 완공된 온실 건물은 대한제국 말기 건축사를 알 수 있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사실 대온실은 아름다운 온실 모습 안에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순종 임금을 창경궁에 감금한 후 위로한다는 핑계로 지은 식물원이기 때문이다. 당시 함께 지은 동물원은 과천대공원으로 옮겨갔다.

온실에서는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후계목을 비롯해 동백, 전북 부안 꽝꽝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구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생 식물을 전시하는 온실 곳곳에서 초록빛 생명이 삐죽이 얼굴을 내민다.

이곳은 봄 소풍 장소로도 그만이다. 아름다운 창경궁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덕택이다. 온실 밖으로 나서면 야외 정원과 작은 호수로 이어진다. 벤치에 앉아 여유로운 봄날의 풍경을 만끽하기 충분하다. 대온실과 인근 구경을 모두 마쳤다면 자박자박 창경궁을 걸으며 호젓한 사색을 즐겨도 좋다.

참고로 사전 예매를 해야만 관람할 수 있던 창경궁 야간개장이 올 1월부터 상시 관람으로 바뀌었다. 밤 9시까지 불빛에 반짝이는 창경궁을 산책할 수 있으며, 통명전과 대온실 일대에서는 고궁음악회가 열린다. 새봄, 창경궁을 따라 길을 나서야 할 이유가 가득하다.

문의 02-762-9515 **위치**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무)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인천 로즈스텔라 정원

인천에는 봄이 오면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있다. 겨우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외투와 미세먼지 가득한 회색빛 도시의 빌딩숲 때문에 지쳤다면 더더욱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서야 한다.

봄은 꽃의 계절이다. 공항철도 계양역 인근에 자리한 로즈스텔라 정원에서는 봄꽃과 함께 꽤 오랜 시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이곳은 아름다운 꽃들이 풍겨내는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플라워&갤러리 카페이다. 엄마와 딸이 사이좋게 운영하는데, 이름 중 '로즈'는 20년간 플로리스트로 활동한 엄마가 좋아하는 꽃 '장미'에서, '스텔라'는 딸 신세림 씨의 세례명에서 각각 따와 붙였다.

카페는 본관과 별관, 온실로 나뉜다. 본관에서는 커피를 포함한 홍차, 허브차 등을 맛볼 수 있다. 카페 곳곳에는 엄마가 그린 미술작품이 꽃들과 조화를 이루고 그릇, 찻잔, 드라이플라워 등도 판매한다. 모두 엄마의 작품이다. 온실에는 다양한 허브와 아기자기한 소품을 전시해 차 한잔 곁들여 느긋하게 머물기 좋다.

문의 032-544-3624 **위치** 인천 계양구 다남로143번길 12 **이용시간** 평일 오전 11시~오후 7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8시

자연에서 누리는 여유, 과천 마이알레

마이알레는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농장이다. '디자인 알레'라는 디자인 그룹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과천 경마공원 렛츠런파크의 뒤편, 한적한 시골풍광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한다.

카페, 레스토랑, 디자인숍, 라운지로 구성한 마이알레에서 가장 매력을 꼽으라면 단연 식물이고 자연이다. 정원에는 나무와 식물이 가득하고, 이곳에서 직접 길러서 수확한 허브와 채소로 건강한 농장식 메뉴를 만든다.

독립 건물에 위치한 온실카페는 다양한 식물이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는 공간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햇살을 맞으며 식물과 함께 봄날의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기기 좋다. 2층은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으로 구성했는데 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도구, 소장욕구가 샘솟는 리빙 아이템 등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복합 문화공간 마이알레에서는 음악과 예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기적으로 작은 콘서트나 클래식 강의,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한다.

문의 02-3445-1794 **위치** 경기 과천시 삼부골3로 17 **이용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월요일 휴무)

일상에 정원을 들이는 방법

초보자 홈 가드닝 가이드

집 안에 작은 식물 화분 하나만 들여놓아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하지만 기르기 까다롭지, 금세 죽어 버리지 막막하다. 가드닝에 도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여진다면 다음을 기억하자. 모종 심는 방법부터 가드닝에 필요한 도구까지 누구라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초보 가드너를 위한 가이드.

글 유미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참고 도서** 《그린썸, 식물을 키우는 손》(위고), 《가드너 다이어리》(지오북)

가드닝 계획부터 세우자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계획이 필요하다. 가드닝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가드닝 초보자라면 무엇보다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어떤 식물을 키울지 정하고 가드닝에 필요한 도구 등을 마련한다.

초보자라서 홈 가드닝이 주저된다면 텃밭 가드닝에 도전해도 좋다. 텃밭 가든은 관리가 쉽고 비교적 생장주기가 짧은 장점이 있다. 농사에 문외한이라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전문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은 스스로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하면 된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쑥갓처럼 물을 적게 주어도 잘 자라 비교적 손이 덜 가는 식물로 시작하자. 또 한 종류만 키우기보다 한 번에 다양한 식물을 소량으로 키우면 좋다. 방울토마토 등 열매채소는 따 먹는 재미가 있다. 3월 말에는 흙을 고르고 비료를 뿌린 뒤 4월경 상추, 치커리 등 잎채소 모종을 옮겨 심으면 된다. 이들은 7월 초순까지 풍성한 초록 텃밭을 이룬다.

가드닝에 필요한 도구

① 목이 긴 **물뿌리개**는 식물에 깔끔하게 물을 주기 좋다.
② **흙**은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다. 주로 배수층을 만드는 마사토와 여러 가지 흙을 비율에 맞게 혼합한 배양토를 쓴다.
③ **화분**은 식물의 모양과 크기, 취향에 맞게 선택한다.
④ 식물을 심은 후 맨 위에 **돌**이나 이끼를 올리면 좋다.
⑤ **꽃가위**는 식물의 가지를 자르거나 잎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
⑥ **모종삽**은 화분에 흙을 퍼 담을 때 필요하다 .
⑦ **그물망**은 화분의 흙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단 구멍을 막을 때 사용한다.
⑧ **분무기**는 겉이끼나 식물 잎에 물을 뿌릴 때 필요하다.

봄을 닮은 구근식물, 모종 옮겨심기

가드닝에 필요한 도구 몇 가지만 갖추면 한결 수월하게 식물을 심고 키울 수 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릴 흙이 필요하고, 그 흙을 담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꽃가위, 모종삽, 그물망 등을 갖추면 된다.

홈 가드닝의 시작은 모종 옮겨심기부터. 화훼단지, 꽃시장 등에서 구입한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야 한다. 봄이 오면 겨우내 잠자던 구근식물이 새초롬한 싹을 피워낸다. 구근식물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뿌리나 줄기의 변형 형태에 저장하는 식물이다. 알뿌리식물로도 불린다. 봄에 심으면 좋은 대표 구근식물은 달리아, 칼라, 칸나, 히아신스, 수선화 등이다. 구근식물은 보통 꽃이 지고 난 후 관리가 어려워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관리만 잘하면 두고두고 꽃을 피운다는 장점이 있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화초는 넉넉한 크기의 화분에 옮겨 심어야 한다. 그래야 무럭무럭 자라난다. 화초를 옮겨 심을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물빠짐이다. 화분 맨 아래에 마사토를 적당히 깔아 배수층을 만드는 것을 잊지 말자.

구근식물 심는 과정

① 그물망을 화분 밑구멍 크기에 맞게 잘라 바닥에 깔아준다.

② 마사토를 화분의 4분의 1 정도 채워 배수층을 만든다.

③ 포트를 살짝 눌러 구근식물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살살 돌려가며 조심스레 빼낸다.

④ 화분 크기에 맞춰 알뿌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넣고, 배양토를 채운다. 이때 살짝 다지는 느낌으로 채운다. 꾹꾹 눌러 다지면 흙이 뭉쳐 배수가 되지 않고, 뿌리의 호흡을 방해한다.

⑤ 맨 뒤에 돌이나 이끼를 올린 후 지저분한 잎을 정리한다. 분갈이를 마치면 화분 아래로 물이 한 번 빠지도록 충분히 물을 준다.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일찍이 생텍쥐페리는 그의 책 〈어린 왕자〉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꺼내어 고백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텐가요? 마음은 밖으로 나와야 빛을 발합니다.
숨긴 마음은 고백하고, 엉킨 마음은 풀어내야 합니다. 깊이 담아 두기만 하면 곪기 쉽고, 곪은 마음은 병을 만듭니다.
저 깊이 꽁꽁 숨겨둔 마음이 있다면 꺼내 보면 어떨까요? 마음을 내어 보이면 마음을 얻을지 모를 일입니다.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알아두면 좋은 봄철 안과 질환 가이드

봄철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이 기승을 부려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과 질환과 예방법, 치료법 등을 살펴본다.

글 김요셉(인하대병원 안과 교수)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봄철 더욱 급증하는 안과 질환

눈은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대기 조성이나 성분, 온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봄에는 늦가을부터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멀리는 몽골, 가까이는 중국의 건조한 황토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황사 때문에 대기의 질이 더욱 혼탁해진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흙먼지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꽃가루들이 날아다니며 눈 건강을 위협한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 요즘, 눈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 꽃가루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고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눈을 비비면 각막이 손상되어 2차 세균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은 4월에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꼽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4월에 28만 9천 명으로 크게 증가한 후 여름철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9월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 미세먼지,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대기오염물질, 화장품 등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자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알레르기 유발 항원들은 안구에 닿으면 눈물에 녹은 상태로 결막으로 이동해 몸속 면역세포와 만나 과민염증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눈의 충혈과 심한 가려움, 결막부종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진료 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10대 미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등의 손위생과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봄철각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의 한 형태)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의심 되어 병원을 찾으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결막을 자세히 관찰하며 문진, 임상 양상에 근거하여 진단을 내리게 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하려면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항원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렵다고 눈을 문지르면 많은 양의 알레르기항원이 손에서 결막으로 이동하게 되고 면역세포(비만세포)의 세포막을 기계적으로 파괴해 더 많은 염증 매개물이 눈으로 방출된다. 결국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오므로 되도록 눈을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다. 눈이 가려울 때 차가운 인공눈물을 넣으면 염증 매개물과 알레르기항원을 희석시켜 증상이 나아 지는데 도움이 된다.

약물치료는 항히스타민제, 비만세포 안정제, 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등을 사용한다. 항히스타민제는 빠른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비만세포안정제는 사용 후 2~5일이 지난 후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며 2주 사용 후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사용 시 백내장, 안압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고 일반적인 치료 요법에 실패했을 때 단기간 사용한다. 이외 혈관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중단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항히스타민제와 동반하여 사용한다.

안구건조증

정상적인 눈의 표면은 매끄러운 눈물막으로 덮여 있어 균일하게 빛을 흡수하고 눈물로부터 윤활, 항균 및 보호 작용, 영양 공급을 받게 된다. 이때 눈물 양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하여 앞서 언급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이물감, 화끈 거림, 눈이 시리거나 흐려 보이는 등 다양한 안구 건조 증상이 나타난다. 안구건조증은 계절적 변동을 보이며 습한 여름보다는 건조한 계절에 악화된다. 또한, 미세먼지, 꽃가루 등 알레르기항원에 노출되면 쉽게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의 평균 상대습도는 이른 봄에 가장 낮고, 5~6월부터 서서히 높아진다. 건조한 날씨와 봄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꽃가루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은 3~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안구건조증은 50대 이상의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며, 특히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나이 들면서 눈물분비를 자극하는 신경물질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고, 눈물샘의 구조가 변하면서 눈물 분비량이 줄어든다. 성호르몬 또한 안구건조증과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은 안구건조증을 억제하는 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안구건조증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구건조증은 안구를 덮고 있는 눈물막이 불안정해져 안구 표면이 손상되는 다인성 질환으로, 눈물막의 농도 증가와 안구 표면의 염증이 동반된다. 눈물이 부족하게 생성되거나 눈물막 증발이 증가할 때 발생하며, 눈물 생성이 부족한 경우는 노화에 의한 건조증이 가장 흔하고 이 외 눈물샘을 침범하는 질환, 반사 눈물 분비를 저하시키는 당뇨, 약물 복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눈물막 증발이 증가하는 경우는 마이봄샘기능장애가 있거나 눈을 적게 깜빡이는 경우, 콘택트렌즈 착용, 안구표면 질환 등을 들 수 있다.

안구건조증은 증상 평가를 위한 설문지, 눈물생성량, 눈물막안정성, 눈물막농도측정, 마이봄샘기능검사 등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 검사들이 시행되며 전신질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안구건조증은 기본적으로 눈물막의 불안정한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한다. 눈물생성이 부족하면 인공눈물을 사용하며 눈꺼풀 염증으로 눈물 증발이 증가한 경우라면 염증 치료를 병행한다. 건조증이 심한 경우라면 눈물점 폐쇄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안구건조증은 다인성 질환이므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유행성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충혈, 눈곱, 눈물, 결막 부종, 눈꺼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직접 접촉이나 수영장 물, 수건 등 간접적인 접촉 등에 의해 전파되므로 야외활동이 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대개 한쪽 눈에 먼저 발병하고,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반대쪽 눈에도 발생한다. 발병 후 2주 가량 전염력이 있으며, 대부분 3주 가량 증상 지속 후 회복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전염방지와 증상 완화에 목표를 두고 치료한다. 눈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고, 수건이나 베개 등 눈 분비물과 닿을 수 있는 것은 따로 쓰도록 한다. 2차적인 세균감염을 막기 위해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하며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증상 완화를 위해 혹은 각막 상피하 혼탁을 줄이기 위해 점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눈에 불편한 증상이 느껴지면 안과로 향하자

어느 정도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분명한 것은, 자각 증상 만으로 질환을 추정하여 경과나 경중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눈에 흔히 나타나는 안구 충혈, 가려움, 결막 부종, 눈물, 시림 등의 증상들은 질환에 따라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염증, 안구 표면의 손상 정도, 개인의 면역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이다. 따라서, 평소와 달리 눈에 불편한 증상들이 느껴지면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요셉 교수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병원 안과에서 진료하고 있다. 김요셉 교수는 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급적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안구 습윤 유지와 야외 활동시 고글이나 썬글라스를 착용하라"고 조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눈과 친밀해 지는 것이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말한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인하대병원 로봇수술센터

로봇수술은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많은 병원에서 전립선암, 신장암, 자궁경부암, 자궁암, 갑상선암, 결장 및 직장암 등의 수술에 로봇수술기를 이용한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2월 20일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했다. 로봇수술기를 이용하면 몇 개의 작은 절개만으로 복잡한 수술을 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로봇수술센터를 이끄는 이들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유미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수술의의 손 움직임을 재현해 원격으로 진행하는 로봇수술

현대 의학의 핵심은 수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술은 신체 장기별, 여러 의학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를 통해 의학이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로봇수술이 시행되었다. 의사는 컴퓨터 속 3차원 영상을 통해 환부를 확인하면서 로봇을 조종해 원격으로 수술을 진행한다. 로봇수술센터장인 비뇨의학과 이택 교수는 "로봇수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지만 모든 수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로봇은 최상위 고난이도 수술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전립선이나 직장처럼 골반뼈로 가려져 있거나 환부가 매우 깊게 자리 잡아 개복으로 접근이 어려울 때, 수술 시 환부 주변에 혈관이 많아 출혈 가능성과 출혈량이 많을 때 로봇수술을 진행한다. 수술 후 상처가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로봇수술을 시행한다. 갑상선 관련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로봇을 이용해 갑상선을 수술하면 목이 아닌 겨드랑이나 겉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절개해 수술한다. 따라서 환자는 상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다.

최첨단 로봇수술기를 갖춘 인하대병원 로봇수술센터

인하대병원은 2017년 말부터 '로봇수술센터' 개소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일 년 동안 여러 부서와 협업해 준비해왔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에 정식 개소한 로봇수술센터는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의료진 11명과 로봇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전문 간호 인력 5명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수술 방법을 적용하기 까다로운 환자들을 선별해 상담하고, 수술 결과를 높이기 위해 최첨단 로봇수술기를 이용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인천 지역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봇수술기구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개발과 개선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최종적으로 4세대까지 개발된 상태다. 이택 교수는 "인하대병원의 로봇수술기는 인튜이브 사의 '다빈치 Xi' 모델로 복강 내 수술을 시행하는 기구 중 최신 버전인 제 4세대 모델이다. 고화질 영상과 확대된 시야를 통해 한 명의 수술의가 4개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초소형 로봇 손을 이용해 환자를 수술한다. 수술 집도의가 외부 조종간에서 로봇의 팔과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하는 식이다. 로봇이 수술하기 때문에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환자에게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제공하고, 의사에겐 육체적 피로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수술 부위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른 로봇수술

실제로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에 비해 훨씬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 세계 의료진들의 연구와 논문에서 기존 수술에 비해 우월한 로봇수술의 장점이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고, 로봇수술기 '다빈치'를 이용해 수십만 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로봇수술은 환부를 절개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처럼 환자의 몸에 1~4개의 구멍을 뚫어 실시한다. 환자의 수술 부위가 작아지는 만큼 출혈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수술은 몇 개의 작은 절개만으로 복잡한 수술을 가능해지므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흉터에 대한 외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통증이나 합병증 발생 위험 또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로봇수술의 예후가 좋은 질병은 전립선암, 신장암, 자궁경부암, 자궁암, 갑상선암, 결장 및 직장암 등이다. 비뇨의학과 이택 교수는 "기존에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는 근치적 절제술, 즉 종양 자체 및 종양을 둘러싼 림프절 등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 행해졌다. 이때 전립선 옆으로 바로 붙어 지나가는 발기신경이 파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기 부전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로봇수술을 통해 수술 부위를 확대된 영상으로 보면서 수술하면 이 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나타나는 요실금 등의 증상 또한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갑상선은 목 부위 대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를 절개해 수술을 시행하므로 수술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직장암 역시 로봇수술을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로봇수술 코디네이터와 함께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수술 과정

수술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로봇수술을 받기로 선택한 환자는 로봇수술센터의 코디네이터에게 연계된다. 코디네이터란 외래 진료, 수술 전 입원 관련, 수술 진행 과정 및 환경 조성 등 전 과정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19년을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로봇수술센터 전미숙 코디네이터는 "로봇수술을 받는 환자는 '로봇'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차가움과 아직은 낯선 수술 방법에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술방법이라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이때 코디네이터는 환자와 가족에게 '로봇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정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후 수술을 위한 입원 과정부터 수술과 관련된 전 과정에 관여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로봇수술 집도의를 비롯한 로봇수술 전담 간호사들과 로봇수술 환자의 정보와 수술 일정을 공유하고, 로봇수술팀을 도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술 전·중·후 과정에 상담자와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코디네이터의 몫"이라고 전했다.

로봇수술을 받는 환자는 수술 전날 입원해 수술에 따른 준비 과정을 거친다. 수술 당일, 환자가 로봇 전용 수술실로 옮겨지면 로봇 전담 마취의가 마취 후 해당과 수술의를 비롯한 로봇수술 전담 간호사, 주변 인력 등의 주도하에 수술이 진행된다. 수술 후에는 환자의 전신상태 안정화를 위해 회복실에서 1시간 내외로 머물렀다가 이후 병실로 옮긴다. 입원기간은 수술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택 교수는 "로봇수술기는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장비에 최첨단 기술을 더해 만든 장비다. 절개수술에 비해 수술 부위가 작은 만큼 회복이 빨라 입원기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 후 관리는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의 치료 과정과 비슷하고, 일주일 정도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환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인하대병원 로봇수술센터

이미 거의 모든 3차 병원은 로봇수술을 통해 많은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인하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최신형 로봇수술기기를 도입하고 '환자 안전'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에 대한 연습과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안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시행 규제를 마련한 것 역시 그런 노력 중 하나이다. 이택 교수는 "인하대병원은 로봇수술기를 도입한 병원 중 시기적으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병원이나 로봇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존재하고, 인하대병원에 로봇수술 기기가 있다는 사실이 환자와 병원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술 환경과 환자의 예후다. 이를 위해 인하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정확하고도 정교한 수술 진행은 물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감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시간 여행자의 아내'와 '어바웃 타임'

시간, 사랑 그리고 삶

시간여행은 끝없이 변주되어 영화로 만들어지는 주제다. 영화 〈시간 여행자의 아내〉와
영화 〈어바웃 타임〉은 시간여행자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본질을 보여준다.
우리에게는 시간여행을 하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매일 평범한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감으로써 시간을 이길 힘이 있다.

글 송준호(대외홍보정책 실장·신장내과 과장) **사진** 구글

시간여행은 끝없이 변주되어 영화로 만들어지는 주제이다. 이 장르의 기원으로 조지 웰즈의 소설 '타임머신'(1895년)을 꼽지만, 필자가 어릴 때 재미있게 읽은 마크 트웨인의 '아서 왕궁의 코네티컷 양키'(1889년)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1843년) 같은 소설을 보면, 그 이전부터 서양 소설에는 시간여행 개념을 다루는 전통이 있었다. 동양은 '홍루몽(紅樓夢)'이나 장자의 '나비의 꿈'처럼 '시간여행'보다 '꿈'을 소재로 다루는 전통이 있다. 서양은 시간을 원인-결과를 가진 흐름의 역사로 보는 데 비해, 동양은 시간을 순환으로 보고 삶을 통시적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에서 시간여행은 몇 가지 내러티브로 다루어지는데 가장 고전적인 것이 타임리프(Time leap, 시간도약)이다. 수많은 버전으로 만들어진 '타임머신'이 원형이고, '백 투 더 퓨처'나 '터미네이터' 같이 진보적인 비주얼과 큰 스케일의 블록버스터 SF 대작이 많다. 타임슬립(Time slip)은 우연한 계기로 다른 시간대로 빠져들면서 겪는 해프닝을 다룬다. 고전 명작 '혹성탈출'이나 최신 항공 모함이 태평양 전쟁 시대로 시공 이동을 하는 '파이널 카운트다운'이 대표 영화이다. 우리나라에도 20대의 철없는 어머니를 만나는 딸의 해프닝을 다룬 '인어공주'가 있다.

타임루프(Time loop)에서는 주인공이 특정 시간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내용을 다룬다. 고전으로 빌 머레이의 '사랑의 블랙홀'이 있고 최근에는 탐 크루즈의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있다. 한때 B급 영화계에서 저예산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무한히 반복되는 루프를 다루다 보니 지루한 내용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는 '하루'가 있다.

시간왜곡 현상, 즉 어느 장소나 특정 물건을 매개로 다른 시간대가 뒤섞여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는 타임워프(Time warp) 내러티브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간대의 아쉬움으로 서정적이고 간절한 스토리를 엮어나가기 유리해서 감성적인 명작이 많다. 무전기를 통해 과거 아버지를 구하는 '프리퀀시'나 피아노를 매개로 한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다룬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등이 있고, 한국에도 '시월애', '동감' 등 수작이 많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감성이 결합한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나타난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대표적이다. 만화가 원작인 일본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 하루가 갈수록 어제가 되어가는 소녀를 사랑하는 소년이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간여행에 삶과 시간에 대한 성찰을 담은 철학적 영화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호에 소개할 두 편의 영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가족이 주는 희망, '시간 여행자의 아내'

'시간 여행자의 아내'는 오드리 니페네거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레드', '인서전트' 시리즈 등 수작을 만든 독일 출신 감독 로베르트 슈벤트케가 연출하였다. 이 영화는 감독보다 원작과 배우들의 영화이다. '트로이'에서 '헥토르' 역을 맡았던 에릭 바나와 제2의 '멕 라이언'이라 불린 레이첼 맥아담스가 시간여행자 헨리와 그 아내 클레어 역을 맡아 가슴 먹먹한 러브스토리를 공감력 있게 연기한다.

헨리는 원치 않게 시도 때도 없이 시간도약을 하는 시간여행자이다. 생애 첫 시간도약은 눈길의 대형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일어난다. 영문을 모르고 혼자 눈길에서 울부짖는 어린 헨리를 달래며 그의 능력을 일러준 사람은 미래에서 온 헨리이다.

어린 자신을 구해주고 현재로 돌아온 헨리는 도서관에서 자신을 잘 아는 듯한 여인 클레어를 만난다. 클레어는 소녀 시절 초원에서 미래에서 온 멋진 헨리를 만난 후, 여느 소녀가 그러하듯 그와 결혼할 것을 꿈꾸며 성장했다. 그리고 둘은 결혼한다.

'시간여행자의 아내'에서 헨리의 시간도약은 중력처럼 중요한 사람의 시간과 장소에 끌린다. 원치 않는 능력으로 사냥감처럼 위험한 삶을 사는 시간여행자 헨리의 공허한 인생을 채워준 것은 아내 클레어고, 삶의 의미를 완성시켜준 것은 딸 앨바다.

클레어의 연이은 유산으로 헨리는 유전학자 켄드릭 박사를 찾아간다. 켄드릭 박사는 시간도약은 간질 발작과 유사하며, 유전이 될 것이며, 태아도 시간도약으로 유산된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와 아내의 불행을 막기 위해 헨리는 독단으로 불임 수술을 해버린다. 격하게 다투고 집을 나온 클레어는 과거에서 온 헨리를 만나고, 그날 딸 앨바를 갖게 된다.

헨리는 시간도약 중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을 만나게 된다. 그녀가 총명하고 아빠와 달리 시간도약 조절 능력도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하지만,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헨리에게 시간도약은 위험이자 저주이다. 간질 발작처럼 원치 않는 순간,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일어나기 때문에 헨리의 대사처럼 '늘 쫓기며 산다'. 딸이 다섯 살이 되는 해, 헨리는 시간도약 중 다쳐 걷지 못하게 되고 다음 시간도약에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한다.

영화는 헨리가 죽은 후, 그 옛날 클레어와 헨리가 처음 만났던 초원에 아직도 시간여행을 하는 젊은 헨리가 나타나는 장면으로 마친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지고 헤어진다. 시간여행자 헨리가 '투명인간'(조지 웰즈)의 그리핀 박사와 같이 비참하고 무가치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것은 아내와 딸 덕분이다. 시간여행자의 뿌리 없는 공허한 인생을 채워준 것은 클레어고, 완성시켜 준 것은 앨바다.

어두움에서 '페이드인' 된 이 영화가 밝은 빛으로 '페이드아웃' 된 것은 가족이 주는 희망 때문이다. 영화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흐르는 독일 가곡 'Est ist ein ros'이다. 이 음악은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를 독일 감성이 짙은 유럽 영화 느낌으로 바꾸어 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

'어바웃 타임'은 리차드 커티스가 감독한 영국 영화이다. 리처드 커티스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노팅 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의 각본을 써서 영국 '워킹 타이틀'사를 로맨틱 코미디의 명가로 만든 주역이다. 감독 경력은 '러브 액추얼리'로 시작하였다. 도널 글리슨과 레이철 맥아담스가 주연을 맡았지만 막상 영화의 품질(?)을 보장해주는 것은 영국 노장 배우 빌 나이와 린제이 던컨이다.

팀은 콘월의 해변가 집에서 일찌감치 은퇴 생활을 하는 아버지와 바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한적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21살이 되는 해, 팀은 아버지에게 대대로 집안 남자들이 자신이 존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과거로 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전해 듣는다. 그 능력으로 아버지는 많은 책을 읽었고, 할아버지는 돈을 벌었지만, 팀은 멋진 사랑을 하는 데 쓰겠노라 결심한다.

팀은 여름휴가로 콘월을 찾아온 여동생 친구 샬롯을 좋아하게 되어 여러 번 시간이동을 해서 환심을 사려 하지만, 시간이동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직장을 위해 런던으로 이사 가 일생의 여인 메리를 만난 팀은 아버지의 괴짜 극작가 친구 해리를 돕기 위해 시간이동을 했다가 메리와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고는 메리와의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몇 번이고 시간여행을 되풀이한다.

'어바웃 타임'은 시간여행을 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영화이다. 아들을 위해 시간 여행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먼저 평범한 삶을 살고, 똑같이 하루를 한 번 더 살라고 일러 준다.

영화는 전반부까지 전형적인 '타임루프 로맨스'의 길을 걷다가, 팀과 메리의 콘월에서의 결혼식과 노장 배우들의 본격적인 등장을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난리통에 흐르는 감미로운 주제가 '일 몬도(세상)'의 절묘한 대조는 영화의 정점을 찍으며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던 팀은 어떤 사건으로 아이를 임신하기 전 과거로 시간이동을 하면 아이가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콘월로 찾아온 팀에게 아버지는 젊을 때 흡연이 원인이지만 팀을 낳기 전 일이라 돌아가 바꾸지 않을 것이며, 50세 전에 일을 포기하고 콘월에서 은퇴 생활한 것도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장례식 후에도 팀은 시간이동으로 생전의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시간이 흘러 팀과 메리는 새 아이를 가져야만 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동을 포기하기를 결심한다. 팀과 아버지는 마지막 고별의 시간을 보내고, 팀은 이제 아버지 없는 삶에 적응하기로 한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시간여행자의 삶

'시간'을 다루는 두 영화에서 진지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과 '가족'에 대한 것이다. '시간여행자의 아내'에서 헨리는 자신의 시간도약이 '중력처럼 중요한 사람이 있는 시간과 장소로 끌리는 것 같다'고 한다. 우리는 시간여행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소중한 사람들에게 끌리고 영향을 받는다.

'어바웃 타임'에서는 자식을 낳기 전으로는 시간이동을 하면 자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팀의 아버지는 암에 걸리지 않을 기회를 포기하고, 팀은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삶을 택한다(평범한 우리들도 그러하다). 정작 시간여행자의 삶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더 많은 선택지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복잡한 고민을 할 뿐이다.

'어바웃 타임'에서 팀의 아버지 역을 맡은 빌 나이는 "시간이동 능력으로 행복하게 삶을 사는 비법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똑같이 하루를 한 번 더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처음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두 번 살면서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어바웃 타임'은 시간이동이란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거나 바꿀 수 없으며, 하루를 잘 살아내는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것이 유일한 혜택임을 보여주려 한다. 그것은 시간여행을 할 수 없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가장 평범한 삶을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면…….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3개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챕터 저술을 한, 손꼽히는 국제적 투석 치료 분야 전문가이다. 인하대병원 대외홍보정책실장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신문 시민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본지를 위해 매회 2편의 주옥같은 영화를 선별해 소개한다.

새봄에 어울리는 새콤달콤 푸드

딸기 찹쌀떡과 딸기 퐁듀

봄 딸기가 한창이다.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올봄에는 특별한 딸기 핑거 푸드를 만나보자. 딸기 찹쌀떡과 딸기 퐁듀가 허끝에 상큼한 새봄을 데려다준다.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요리&스타일링** 박정윤(노하우스)

딸기 퐁듀

재료(2인 기준)

다크커버초콜릿 200g, 화이트커버초콜릿 200g, 딸기 1팩, 짤주머니 2장, 산적꼬지

만들기

① 다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을 템퍼링한다. 이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딸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다.
③ 딸기 꼭지 부분에 산적꼬지를 꽂아 초콜릿을 묻히기 쉽게 만든다.
④ 중탕한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을 딸기의 3분의 2까지만 묻힌다. 이때, 초코분태, 스프링클 등 원하는 토핑을 올려도 된다.
⑤ 초콜릿 묻힌 딸기를 쟁반이나 접시에 올려 굳힌다.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어 굳힌다.
⑥ 초콜릿이 완전히 굳으면 남은 화이트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을 각각 짤주머니에 넣어 꾸민다.
⑦ ⑥까지 굳으면 꽂아 둔 꼬지를 빼내고 마무리한다.

딸기 찹쌀떡

재료(2인 기준)

찹쌀가루 100g, 물 약 200ml, 소금 1t, 설탕 1T, 전분 100g, 팥앙금 400g, 딸기 500g(약10개)

만들기

① 찹쌀가루 200g에 소금 1t, 설탕 1T를 넣어 섞는다.
② ①에 물 150ml를 조금씩 나누어 넣으면서 치대 가며 반죽한다.
③ 반죽에 랩을 씌워 구멍을 낸 후 전자레인지에 4~5분 돌린다.
④ 팥 앙금을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동글납작하게 빚은 후 딸기를 감싼다.
⑤ 접시에 전분을 깔고 반죽을 올려 적당한 크기로 나눈다.
⑥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 밀대로 일정하게 밀어준다.
⑦ 반죽 위에 ④를 올려 감싼 후, 전분을 묻혀 한 번 털고 마무리한다.

More Tip 템퍼링하는 법

커버처 초콜릿을 45~50℃에서 완전히 녹인 다음 온도를 26~28℃로 낮추었다가 다시 온도를 28~30℃로 올린다.

전라남도 순천 여행

봄날의 꽃 잔치 열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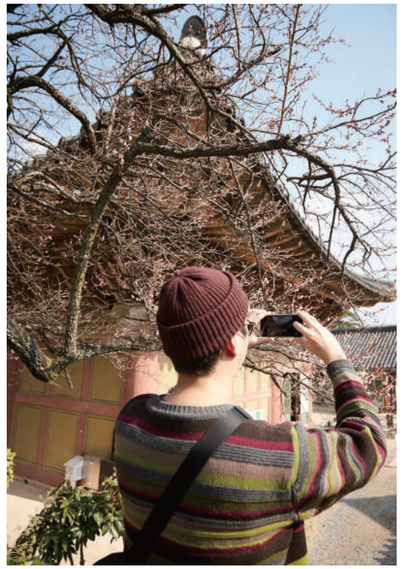
선암사 홍매화가 수줍어 얼굴을 붉히고, 낙안읍성민속마을의 돌담길에서 나는 흙냄새가 달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온갖 식물은 생명의 바람을 일으킨다. 살아 숨 쉬는 것을 찾아 떠난 이른 봄, 순천 여행. **글** 박지영 **사진** 백기광, 제동환(스튜디오100)

봄날의 순천을 만끽하는 방법

가을 황금빛 갈대밭으로 유명한 순천이지만 이른 봄 찾은 순천에서는 새 생명의 바람이 일으키는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전남 순천은 순천만, 선암사, 송광사 등 수려한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을 품은 여행지다. 선암사와 송광사에서는 봄꽃 구경을 원 없이 할 수 있다. 상사호 벚꽃길, 동천 등에서는 지천에 가득한 벚꽃이 여행객을 기다린다.

순천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타임머신 여행도 가능하다.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삶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순천 시티투어는 이들 알짜배기 관광지를 일목요연하게 꾸려 놓아 순천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이미 사랑받는 프로그램이다. 트롤리버스를 타고 돌아보는 도심순환코스, 각각 선암사, 송광사, 드라마촬영장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자연생태코스 등 총 4개 코스가 있다.



품위 있는 천년 고찰, 선암사의 선암매

순천 조계산은 선암사와 송광사를 품고 있다.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에 자리 잡은 선암사는 많은 선승을 배출한 태고종 본산이다. 선암사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다란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가 여행객을 맞이한다. 다리를 건너면 신선이 되어 하늘을 오른다는 뜻을 가진 승선교는 화강암으로 만든 아치형 돌다리로 선암사를 찾는 이들에게 기념 촬영 포인트로 통한다.

봄이면 선암사에는 매화, 산수유, 벚꽃이 차례대로 피어 꽃 잔치가 벌어지는 통에 꽃구경 나온 나들이객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선암매'로 알려진 홍매화가 유명하다. 이 매화를 보려고 선암사를 찾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선암매는 천연기념물 매화나무 중 생육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한다. 3월 초순, 아직은 겨우 한 송이 눈을 뜬 상태이지만 4월경에는 절정에 이른다고 하니 '선암매'를 보기 위해서라도 올봄 순천을 찾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선암사 인근에는 야생차체험관이 있다. 다례·다식, 한옥명상, 전통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잠시 들러 차 한 잔 음미하는 여유를 부려보자.

하루 종일 머물러도 좋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터전을 새로이 단장해 탄생한 곳이다. 하루 종일 머무르며 뛰놀아도 좋을 만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봄에는 튤립, 철쭉동산, 유채꽃, 꽃양귀비, 여름에는 물놀이체험, 호수정원, 가을에는 억새, 겨울에는 눈꽃 얼음 등 계절별 맞춤형 테마로 운영한다. 수목원, 습지센터, 세계정원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꿈의 다리는 물 위에 떠 있는 미술관으로 세계 어린이들의 꿈을 전시해둔 곳이다. 아이와 함께라면 일부러 찾아보면 좋다. 호수정원이 선사하는 밤풍경도 놓치지 말자. 작은 섬처럼 생긴 이곳에서 반짝반짝 아름다운 밤을 만날 수 있다.

500년 전 조선의 숨결, 낙안읍성
순천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거슬러 오른 듯한 풍경과 마주할 수 있다.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계획도시로, 삼한·고려·조선 시대의 초가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잘 보존된 성곽, 관아 건물과 고즈넉한 돌담길에 이르기까지 옛 모습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이 더욱 이색적인 건 전시용이 아닌 살아 숨 쉬는 마을이라는 것이다. 210여 채의 초가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은 여전히 10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다. 초가와 초가 사이에 난 마을길은 포근한 흙길로 다져 놓아 오랜만에 흙을 밟으며 푸근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천연염색, 목공예, 대장간, 길쌈, 짚물공예, 소달구지 체험 등 다양한 민속체험도 할 수 있고, 초가집에서는 민박체험이 가능하다.

놓치기 아까운 순천의 또 다른 여행지
법정 스님의 향기를 찾아, 송광사 송광사도 순천에서 놓치면 섭섭한 곳이다. 많은 이들이 송광사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무소유 법정 스님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다. 송광사의 산 속 암자 불일암은 1975년부터 법정 스님이 혼자 지내면서 수많은 글을 집필한 곳이다.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드라마 촬영장 순천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가능한 도시다.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드라마 세트장은 1960년대 순천 읍내거리, 1970년대 서울 봉천동 달동네, 1980년대 서울 변두리 거리 등 3개의 마을을 시대별로 감쪽같이 재현해 놓았다.

초록 파도 넘실대는 순천만 가을 순천만은 은빛 갈대로 이미 유명하지만 늦은 봄날의 순천만은 또 다른 매력을 뽐낸다. 5월경 순천만을 방문하면 초록 옷을 차려입은 갈대밭을 만날 수 있다. 용산전망대에서 순천만을 한눈에 담아도 좋다.

신관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당신의 발걸음에 날개를 달아드려요

그동안 조금 불편하셨나요?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 당신의 발걸음과 움직임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 드릴게요. 최근 인하대병원 외래 공간 신관에 에스컬레이터(Escalator), '계단승강기'가 생겼습니다. 2층에서 3층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에스컬레이터가 생기기 전에는 지하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려면 18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한 후 다시 3층까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해서 많이 불편했어요. 이제는 에스컬레이터만으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한층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병원 이용, 조금 더 편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글** 편집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춘곤증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봄은 진정 아름답지만, 따뜻한 바람은 나른함과 피로감을 실어 옵니다. 새봄이 되면 우리는 자주 잠이 오고 곧잘 피곤해집니다. 어쩐지 의욕이 없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춘곤증, 즉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지요. 춘곤증에는 초록 '봄나물'이 좋습니다. 비타민을 품은 봄나물은 잃은 입맛을 찾아주고, 무기력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습니다. 봄나물에 들어 있는 항산화 물질은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봄, 제철 맞은 아삭아삭 향긋한 봄나물로 건강한 밥상을 차리세요. 그리고 배부르게 드세요. 봄나물이 가진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몸속에서 봄 햇살처럼 퍼질 거예요.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자원봉사자 오정순·김옥회 씨·공공의료사업지원단 임자현 대리

한결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받았다면 결코 잊지 말고, 사랑을 주었다면 잊어도 좋다. 인하대병원에는 이웃에게 온전히 사랑을 주면서도 주었다는 사실을 잊고, 오히려 기쁘게 잊는 이들이 있다. 오랜 세월 인하대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오정순, 김옥회 씨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랜 세월 한결같이 자원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다.

글 박지영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자원봉사자 **김옥회** 씨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임자현** 대리

자원봉사자 **오정순** 씨

#1 자원봉사자 오정순 씨의 속 깊은 이야기

오정순 씨는 15년째 인하대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회 환자 목욕과 샴푸, 발마사지, 종교봉사 등을 담당한다. 이전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하는 이들을 돌봤다. 처음 인하대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도 호스피스 병동이다. 몸이 아파 고생했던 오정순 씨가 건강해진 후 보람된 일을 찾아 나선 참이었다.

"시작할 때는 15년의 세월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죠. 어느 틈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원래 몸이 아팠는데 건강해지고 보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 손길을 보태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동기들과 인하대병원으로 온 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봉사를 했지만 요즘은 일주일이 봉사 일정으로 빼곡하다. 오정순 씨의 일상은 자원봉사자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스로 내키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리라.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책임도 따른다.

"무척 힘겨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길게 해야 2~3년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환자가 누운 채로 머리를 감겨요. 환자 상태에 따라 나름의 노하우와 방법이 있지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환자가 적어도 한두 개, 많으면 대여섯 개의 호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목욕을 해 드릴 때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인격을 존중하며 하죠. 또 제가 하루 빠지면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받는 환자들이 2주를 기다려야 해요.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일일이 병동에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책임이 따르는 일이죠."

그는 봉사에 필요한 요소로 '약속'과 '환자와의 교감' 두 가지를 꼽는다. 그중 '환자와의 교감'은 그를 더욱 진심으로 봉사하게 만든다.

"환자들은 머리를 감기는 제 손길 하나에도 제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지, 보이는 데만 신경 쓰는 가짜 봉사자인지, 제 마음이 급한지 등 모든 것을 알죠. 신경이 온통 제게 집중돼 있으니까요. 제 진심이 피부에 닿으면 무척 고마워하세요. '덕분에 더 오래 살았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봉사하면서 에너지가 샘솟죠. 그런 환자에게는 오히려 제가 고마워서 반찬도 해드리고, 세탁 심부름도 해드리곤 해요."

그의 남편도 주말 이틀 동안 인하대병원에서 발마사지 봉사를 한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봉사를 하면서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오정순 씨는 몸이 아프지 않는 한, 그의 가족이 아프지 않는 한 봉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봉사는 그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자원봉사자 김옥회 씨의 속 깊은 이야기

김옥회 씨가 인하대병원과 인연을 맺은 건 2013년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료봉사를 비롯해 공급실, 채혈실, 도서실 등에서 봉사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봉사는 현재 월·화·수·금요일 일주일에 네 차례로 횟수를 늘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7시간씩이다. 인하대병원에 오지 않는 목요일이라고 해서 쉬는 건 아니다.

"목요일에는 인천 청량산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해요.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되겠네요(웃음). 주말에도 마라톤 대회 등 봉사할 곳이 생기면 두 번 고민 않고 집을 나서요."

음료봉사는 병원 곳곳을 다니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따뜻한 둥굴레차를 건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봉사를 하다 보니 낯익은 얼굴,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여럿이다.

"병원에 오래 있는 분들은 제가 다니는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찾거나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워하신다고요. 환영 받는 느낌이 참 기분 좋죠. 감사 인사도 잊지 않고 해주시고요."

간혹 그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환자도 만난다. 그럴 때 잠깐 화도 나지만 몸이 아프다보면 마음까지 편치 못할 거라고 배려하며 친절한 태도를 잊지 않는다.

"대부분 아프신 분들이니 이해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예민해질 거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죠."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는 인생에서 '건강'이 최고임을 확신한다.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오래 병간호를 하면 지쳐서 아파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에 있는 모든 이들이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가 매일 나눠주는 둥굴레차를 마시고서 말이다. 따라서 인하대병원에 있는 모든 이들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김옥회 씨의 봉사는 계속될 것이다.

#3 자원봉사자 담당, 임자현 대리의 속 깊은 이야기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임자현 대리는 2015년부터 4년째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리를 도맡고 있다. 자원봉사 출결 관리,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접수, 발전 방향 모색, 영화 관람, 송년회 등 자원봉사자 행사 진행, 신규 자원봉사자 업무 배치와 관리 등 자원봉사자실 운영을 조율한다. 그는 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람', 즉 '자원봉사자', 나아가 그들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원봉사자들과 담당자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기에 최대한 봉사자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해요. 늘 자원봉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 업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꾸준히 봉사하며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는 봉사자를 볼 때, 또 봉사를 받고 고마워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무척 좋다. 자원봉사자가 겪는 일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기쁘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일로 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 생각에 편히 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오래 지낸 환자나 보호자가 자원봉사자를 찾으며 함께 걱정하고 칭찬할 때마다 저 또한 고맙고 즐겁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장기 입원 환자나 보호자, 직원들이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짧은 인사나 자그마한 선물을 받고 무척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일처럼 마냥 좋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정情이 많이 든 모양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에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

"늘 봉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하대병원의 객원멤버처럼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건강하게 만나 뵙고 싶어요. 앞으로 병원과 함께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신규 자원봉사자들과 지금처럼 꾸준함을 유지하고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꼭 나와서 봉사하고 싶은 자원봉사팀을 만들고 싶어요. 봉사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자원봉사자들과 돈독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곧잘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을 잊는다. 또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종종 잊는다. 그러다 곤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군가를 절절하게 찾는다. 이때 물에 빠진 이들에게 지푸라기가 되는 것도 어쩌면 무척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일 것이다. 오늘 내게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고 친절을 베푸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살 만한 것이리라.

2019 연탄배달 봉사를 마치고

연탄 창고만큼 가득 찬 마음

800원, 800℃, 3.65Kg. 2019년 연탄배달 봉사의 또 다른 이름이다. 2017년에 이어 작년 12월 아홉 살짜리 큰아이와 두 번째 연탄배달 봉사에 도전했다. 작년과 달라진 것이라면 올해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배달목표를 달성한 것. 그만큼 아이가 자란 것이다. 재활의학과 김혜정 간호사의 연탄배달 봉사 이야기다. 글 김혜정(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외래간호사)

두 번째 연탄배달 봉사에 도전하다

2011년 첫딸이 태어난 뒤 3교대 근무하랴 대학원 다니랴 바쁜 가운데 연년생으로 둘째가 생겼다. 늘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큰아이는 대부분 가까운 할머니 집에서 생활했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이 컸다.

2017년 12월. 연탄배달 봉사 공지를 보고 큰아이와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하고 싶어 참가신청을 했다. 둘째도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연탄 무게가 3.65Kg이다보니 또래에 비해 작은 둘째를 데려갔다가는 연탄 한 장 제대로 나르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함에 "언니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간다"는 거짓말로 따돌리고 둘이서만 집을 나섰다.

유난히 추웠던 2017년 12월. 인천 학익동에 집결했다. 첫 배달 코스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집이었는데, 아이는 한 개를 안고 나는 두 개를 날랐다. 곧잘 하던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체력이 달렸고, 언덕 중간에서 자꾸 내게 연탄을 떠넘겼다. 결국 나 혼자 아이까지 데리고 배달을 오가느라 제 몫을 못했다. 아이의 첫 연탄배달 봉사는 공공의료사업지원단에서 간식으로 준비해 주신 귤만 까먹고 돌아왔던 기억으로 남았다.

무사히 배달 목표 달성

2019년 2월. 지난해의 부족함을 만회하고자 봉사 공지가 뜨자마자 신청했다. 큰아이와 "이번에는 20장만 잘 배달해 보자!"라고 약속하고 출발! 이번에도 학익동에서 집결했다. 아이들은 대부분 연탄을 안고 가기 때문에 우비 단추가 등으로 가게 입히고 팔 토시와 따로 가져온 장갑까지 완벽하게 배달준비를 마치고 시작했다. 미세먼지와 따뜻한 겨울 날씨에 아이는 "덥다, 목마르다, 무겁다"를 외쳤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배달목표를 달성했다. 배달지에 가는 언덕 중간에 사는 '맥주와 소주(누렁이와 검둥이 강아지)'가 참가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연탄 나르던 손으로 여러 명이 쓰다듬는 바람에 "누렁이는 배달이 끝나면 검둥이가 될 것만 같다"며 참가한 선생님들과 한바탕 웃었다.

참 달고 시원했던 배 한 조각

사교성 좋은 큰아이는 어느 틈에 엄마 따라 참가한 동갑내기 친구를 사귀고, "내년에 또 만나자"고 약속했다고 하니 다음에도 참가해야할 것 같다. 새까매진 손톱을 씻어내고 얼굴에 묻은 연탄을 닦아주며 언제 이렇게 컸나 싶다가도 강아지와 노는 게 더 좋은 아직 어린 아홉 살 아이와의 두 번째 봉사는 목표달성으로 마쳤다. 둘째도 연탄을 무사히 나를 수 있을 만큼 자라면 셋이 같이 참가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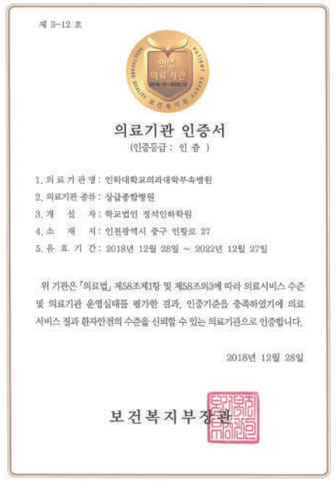
보통 3~4월까지는 연탄을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연탄 값이 많이 올랐다. 한 장에 800원짜리 연탄을 하루 서너 장씩 써야 한다. 혹시나 연탄이 비싸서 연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래도 빠른 걸음으로 부지런히 배달한 후 가득 찬 연탄 창고를 보니 마음이 가득 찼다. 덕분에 돌아오는 길은 몸도 마음도 가뿐했다.

배달하는 집 어르신께서 내어주신 배 한 조각은 며칠이 지난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달고 시원했다. 800℃ 연탄의 힘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한다.

3주기 상급의료기관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

환자 중심 병원으로 인정받다

인하대병원은 인천 지역 최초로 3주기 상급의료기관 인증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전 부문 무결점 인증 획득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통해 환자안전시스템이 정착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글 신정애(가치혁신팀 팀장)



제 3-12 호

의료기관 인증서

(인증등급 : 인 증)

1. 의 료 기 관 명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 의료기관 종류 : 상급종합병원
3. 개 설 자 :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4.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5. 유 효 기 간 : 2018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27일

위 기관은 「의료법」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천 지역 최초 3주기 상급의료기관 인증기관 통과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현장조사를 받아 인천 지역 최초로 3주기 상급의료기관 인증기관으로 통과했다.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총 520개 조사 항목에 대해 병원 환자안전시스템 전반을 평가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감염관리 부문과 안전한 주사실무, 직원 및 환자안전부문, 의약품 관리부문에서는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전 부문 무결점 인증 획득

이번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에서는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쉼 없이 자발적으로 노력해 온 부분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받으며 조사위원들로부터 매우 안전한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 부문 무결점 인증 획득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통해 환자안전시스템이 정착해 유지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자체적으로 신속대응팀의 활동, 위험관리프로그램 운영, 위기대응 훈련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제도가 의료기관평가인증의 신규 기준으로 의결된 것을 보면 인하대병원이 환자 안전을 위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노력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이 되고자

앞으로도 인하대병원은 지난 10년간의 쉼 없는 노력으로 구축된 안전시스템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모든 직원은 안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또 환자안전 가치가 최우선 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2011년부터 국내의료기관 평가 인증 3회 획득과 JCI(국제의료 기관평가 위원회) 인증 3회 연속 획득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똑똑하게 챙겨 먹는 약 사용 설명서 ③

치질치료제

치질은 현대인의 75% 정도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은밀한 골칫덩이로 선뜻 진료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지 않은가. 치질 약, 알고 사용하자. 글 Ref. KIMS online, 약학정보원

며칠 전부터 항문에서 피가 나는데 치질인가요? 치질은 어떤 질환이고, 어떤 약을 사용해 치료하나요?

치질은 항문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항문 벽의 정맥 혈관그물이 늘어나서 혹이 생긴 치핵,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항문샘이 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치루로 나뉩니다. 치핵이 치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일반적으로 치질이라고 하면 치핵을 말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등 항문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세나 생활태도, 변비나 배변 시 지나치게 힘을 주어 항문점막이 내려가는 등 계속된 자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음주, 비만, 고지방 식이, 임신과 출산, 만성피로도 영향을 미치며 생활습관에 따라 악화되고 재발합니다.

수분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자주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좌욕을 하거나 얼음팩을 사용하여 항문 주위 부기를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약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항문 질환인 항문 벽의 정맥 혈관그물이 늘어나서 혹이 생긴 치핵,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치질 약은 항문 주위를 직접 치료하는 크림이나 좌약 등의 외용제와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등 경구약이 있습니다.

치질을 치료하는 외용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용제는 연고, 크림, 좌약입니다. 항문 주위에 적용하는 근육이완제, 소염제, 국소마취제, 혈관수축제 등의 성분이 사용됩니다. 단일 성분의 외용제와 복합제가 있는데, 복합제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비타민 E(토코페롤), 상처를 치료하는 비타민 A(레티놀), 세포재생효과가 있는 알란토인 등을 첨가합니다.

치핵은 항문 주위의 정맥 혈관그물이 늘어나서 생기는 질환이므로 근육이완제를 사용하여 항문 주위의 근육을 이완하고, 혈액순환과 정맥혈관의 재생을 도우면 통증이 완화되고 치질이 회복됩니다. 단일성분의 근육이완제는 니트로글리세린 성분의 렉토제식연고® 등이 있습니다.

항문 주위에 스테로이드 등 소염제를 사용하면 염증을 감소시켜 치질로 인한 불쾌감과 가려운 증상이 완화합니다. 프록토세딜® 등 연고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인 히드로코르티손 성분으로 항염증 작용을 하며, 디부카인의 국소마취, 에스쿨로시드의 혈액순환 개선, 네오마이신의 항균작용이 복합되어 치질을 치료합니다. 국소마취제는 통증을 완화하는데 프라목신 성분의 헤모렉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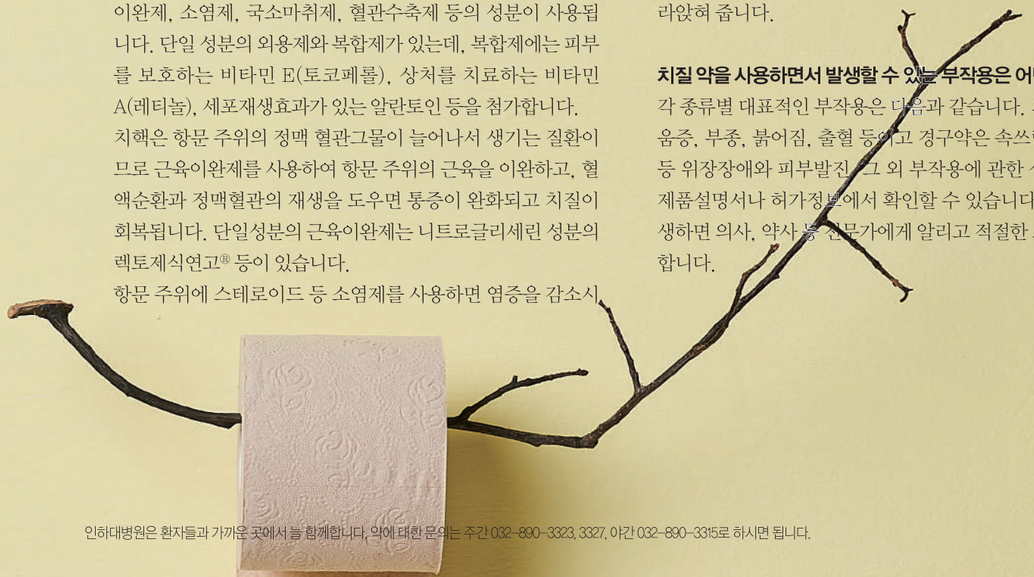
출혈이 일어났을 때는 혈관수축제를 사용하여 부종과 출혈을 억제합니다. 푸레파연고® 등은 페닐에프린 성분의 혈관수축 작용과 리도카인의 국소마취, 알란토인 성분의 피부보호, 클로르헥시딘 성분의 항균작용, 토코페롤의 항산화, 레티놀의 상처치료 복합 작용으로 출혈을 억제하고 통증 및 가려움 등 자극감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경구제는 어떤 작용을 하나요?

경구약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정맥 치질약과 대변완화제, 소염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정맥 치질약은 세포 손상을 막고 모세혈관을 강화하여 혈관 탄력 개선 및 혈액순환 정상화, 항염 작용을 통해 치질로 인한 출혈, 가려움증,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디오스민, 트록세루틴, 헤스페리딘 등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사용됩니다. 완화제는 굳은 변을 부드럽게 하여 항문 자극을 줄여 치료를 도와주며 주로 팽창성 하제(대변의 양을 늘려 변비를 치료하는 약)를 사용합니다. 소염진통제는 치핵으로 인한 통증과 부종을 가라앉혀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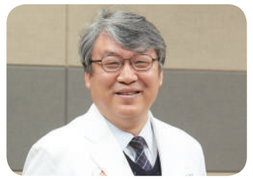
치질 약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인가요?

각 종류별 대표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용제는 가려움증, 부종, 붉어짐, 출혈 등이고 경구약은 속쓰림과 미식거림 등 위장장애와 피부발진 그 외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나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INHA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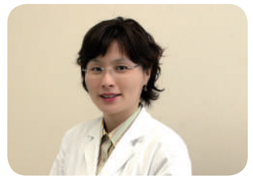
2018. 12. 12
기고자 :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언론사 : 중앙일보
주 제 : GMO 작물 속 발암물질을 보는 두 가지 시각

2018. 12. 12
인터뷰 :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언론사 : 동아일보
주 제 : 뇌종양의 일종 '두개인두종'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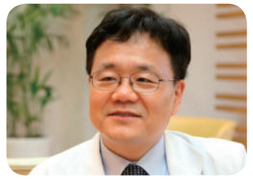
2018. 12. 31
기고자 : **로봇수술센터 의료진(비뇨의학과 이택, 강동혁 교수, 외과 이진욱 교수)**
언론사 : 데일리메디
주 제 : 인하대병원 로봇센터 '환자 안전 기반 최고 수술'

2019. 1. 1
기고자 : **신경과 나정호 교수**
언론사 : 경향신문
주 제 : 뇌졸중 환자 해마다 10만여 명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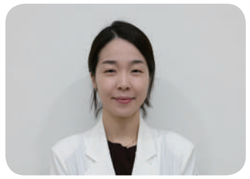
2019. 1. 9
기고자 :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언론사 : 중앙일보
주 제 : 장난감 빨며 노는 어린이, 성인되면 불임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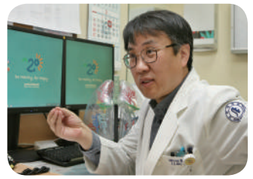
2019. 1. 16
기고자 :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교수**
언론사 : 약업신문
주 제 : 부당경량아, 적극적 성장호르몬 치료 가능하다



2019. 1. 16
기고자 : **신장내과 송준호 교수**
언론사 : 인천일보
주 제 : 국의대, 의사를 이타적 사람으로 육성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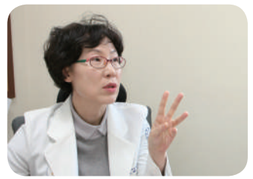
2019. 1. 16
기고자 : **신장내과 지종현 교수**
언론사 : 기호일보
주 제 : 신장 주기적 검진 통해 건강 체크해야



2019. 1. 20
인터뷰 :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
언론사 : 서울경제
주 제 : 맞춤 항암치료 '그림의 떡' 안 돼야

2019. 1. 22
인터뷰 : **비뇨의학과 이택 교수**
언론사 : 경인일보
주 제 : 인천서도 '로봇 이용 정밀 수술' 앞날 밝다

2019. 1. 25
인터뷰 : **외과 허윤석 교수**
언론사 : 머니투데이
주 제 : 올해부터 비만 수술 건보 적용



2019. 1. 25
기고자 :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교수**
언론사 : 동아일보
주 제 : 유방암 예방 위한 무분별한 여성 호르몬 사용 피해야

INHA NEWS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018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도권 1위, 전국 2위 기록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서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센터장 안승익)가 작년 전국 1위에 이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2위, 수도권 전체에서 1위를 기록하며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국 401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가 지표 중 특히 환자 전원의 안전성, 응급시설 운영의 적절성, 중증 응급환자 책임 진료, 응급의료정보 신뢰도, 재난 대비 및 대응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희귀질환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 선정

인하대병원이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사업'에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로 선정되었다. 사업 수행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다.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사업은 희귀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전문 의료 인력 교육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공모를 진행한 사업이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7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유전질환 환자에 대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단검사의학과의 지원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해당 의료진이 진료를 담당하는 희귀유전질환센터를 개소했다.

현존 최고 사양 MRI 시그나 아키텍트 3.0 테슬라 도입

인하대병원이 최첨단 MRI 장비 시그나 아키텍트 3.0 테슬라(SIGNA Architect 3.0T)를 도입했다. 국내 최초로 초고속 촬영 검사 기능을 탑재한 시그나 아키텍트는 국내 최고 사양 128채널 수신 채널의 장비이다.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높은 채널 수 코일을 사용하며, 영상 화질의 손실 없이 빠르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압축 센싱 기능까지 갖추었다. 더불어 패스트 브레인(Fast Brain) 기능은 기본 MR 영상을 빠르게 획득해 향후 응급환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MRI 검사에서는 불가했던 CT 같은 근골격계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진단방식으로 환자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사일런트 스캔 기능을 통해 MR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SK와이번스 초청 팬사인회 개최

인하대병원은 박정권 선수 등 SK와이번스 스타급 선수들을 초청하여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인회는 박정권·박종훈·노수광 선수를 초청해 진행했으며, 선수들은 8층 소아병동을 찾아 50여 명의 환아들에게 캐릭터 인형을 선물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 등을 대상으로 사인회를 개최하며 쾌유의 희망을 선물했다.

더불어 인하대병원과 SK와이번스가 함께하는 '행복드림'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박정권 선수의 홈런과 박종훈 선수의 승리 수만큼 적립된 성금 1,600만원은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 및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비 지원에 쓰인다.

토요타와 함께 자선병원 콘서트 개최

인하대병원은 지하 1층 로비에서 토요타와 함께 '자선 병원 콘서트'를 실시하여 추운 겨울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로했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이 기획과 공연 전반을 맡았다. 개그맨 송준근 씨가 사회를 보고, 지휘자 우나이 우레초(Unai Urrecho), 소프라노 손지수 씨와 함께 KBS 교향악단의 마음을 치유하는 협주로 인하대병원을 방문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모 병원장은 "추운 연초에도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인하대병원은 고된 치료를 극복해나가는 이들과 늘 함께하며, 추운 날씨지만 마음을 보살펴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강 경유 내시경 갑상선암 수술 국제 워크숍 개최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는 구강 경유 내시경 갑상선암 수술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홍콩, 인도, 필리핀, 조지아, 국내 총 5개국 8명의 외과·이비인후과 의료진을 초청해 진행한 워크숍은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이진욱 교수(외과)가 주로 진행하며 갑상선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구강 내시경 수술'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진욱 교수는 2018년 12월 현재까지 약 180명 이상의 갑상선암 환자에게 이 수술을 시행하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수술 경험을 보유한 권위자다. 구강 경유 내시경 갑상선암 수술은 입술과 아랫잇몸 사이 점막에 내시경 수술 기구를 넣어 갑상선에 접근하여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 흉터가 없으며 통증이 적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른 편이다.

2018년도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 개최

인하대병원은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 구지회 동문회장, 협력병원 34개의 병원장을 비롯한 진료과장 및 인하대병원 의료진 등 총 180 여 명이 참석한 '2018년도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힘쓴 협력병원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 뒤이어 인하대병원 박현선 기획조정실장의 '보건의료 가치사슬의 이해', 백진휘 응급의학과 과장의 '고압산소치료', 암통합지원센터 최선근 센터장의 '암통합지원센터 소개' 관련 소개가 이어졌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안 개발 및 지역 협력 강화 위한 심포지엄 성료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안 개발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자체 간의 협업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이은영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고광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정한영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와 인천 지역 의료진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인천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가치기반 병원 만들기' 세미나 개최

인하대병원은 병원 소속 전체 전문의를 대상으로 '가치기반 병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가치 기반 병원 만들기,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핵심가치인 '환자의 안전', '의료의 질', '환자 경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2019년에는 가치와 지표에 중심을 두고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가치기반 병원을 만들려면 핵심의료 인력, 특히 의료진들의 의식 변화,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하대병원에서는 차세대 지식기반 병원정보 시스템 도입과 함께 환자군별 임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합·분석할 수 있는 '인하 가치기반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역 중·고생 대상 '동계 나눔학교' 개최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인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계 나눔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천지역 중·고생 20여 명은 병원직업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연수구 문화의 집 나눔활동 등 직접 다양한 활동을 미래의 꿈에 대해 고민해보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8월에 개설된 인하대병원 나눔학교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바른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매 방학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진료 안내 (2019년 3월 3일 기준)

진료과		교 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욱	노인의학
감염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권혜윤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임재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박흥재	일반내과
뇌신경센터(BNC) ☎2370 2375	신경과 NRNN	나정호	뇌신경질환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배은기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윤혜원	뇌졸중, 치매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중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신경외과 NSNN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뇌혈관센터 (CBC) ☎3860 3865	신경과 (NRCB)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윤혜원	뇌졸중, 치매
	신경외과 (NSCB)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내분비 내과	남문석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홍성빈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김소헌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정미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외 과	허윤석	비만 · 당뇨 · 위수술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후체력증진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통풍
		이승윤	관절염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이정심	부인암, 유방암, 특수방사선치료
비뇨의학과 ☎2360		박원희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성도환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이 택	전립선, 종양, 결석, 소아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비뇨기 종양, 결석, 전립 질환
산부인과 ☎2270,2117		김동호	종양학, 복강경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종양학, 복강경
		최수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한경희	종양학, 복강경
		장신아	일반부인과, 부인과내분비학
성형외과 ☎3870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기세휘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톱재건술, 미용수술

진료과		교 수	세부전공
성형외과 ☎3870		최승석	신경재건, 손목터널증후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종양, 흉터, 미용성형, 체형교정, 보톡스 및 필러
소아청소년과 ☎2260		김순기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두통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열, 특수예방접종, 여행자의학
		이주영	신생아, 미숙아, 발달
		양아람	유전성대사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장질환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남수경	신생아, 미숙아, 발달
소화기내과 ☎2224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이돈행	담도·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진영주	해외연수 2018.8.15 ~ 2019.8.14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유정환	간, 소화관,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고원진	위장관 질환, 소화관 암(위암, 대장암), 식도운동질환, 역류성 식도염, 비만
신경과 ☎3860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배은기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윤혜원	뇌졸중, 치매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중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신경외과 ☎2370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신장내과 ☎2229		김문재	신장질환,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지종현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클리닉 (KTC)	NHKT	김문재	신장이식
		황선덕	신장이식
	GSKT	박근명	신장이식
심뇌재활센터(RMCR) ☎2480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두경부 통증
심혈관센터 (CVC) ☎2200	CV	권 준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김대혁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우성일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신성희	해외연수 2018.08.01 ~ 2019.7.31
		권성우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시술
		박상돈	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백용수	부정맥 심방세동 서맥 빈맥 전극도자절제술
	PD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안과 ☎2400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강성모	성형안과, 사시

진료과		교 수	세부전공
안과 ☎2400		김나래	녹내장, 백내장
		정지원	백내장, 각막, 안구건조증, 렌즈삽입술
		김요셉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안과레이저		EYAL	레이저클리닉
알레르기내과 ☎2217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영상의학과 ☎2740–3		조순구	중재적 영상의학
		전용선	중재적 영상의학
		김우철	유방방사선학
외과 ☎2250		신석환	소화기외과, 위암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허윤석	소화기외과, 위
		최선근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허민희	유방, 내분비외과
		최윤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정성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안종혁	유방, 내분비외과
		최정식	간담도외과, 일반외과
		김재환	유방, 갑상선
		고 진	혈관이식외과, 일반외과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BTC) ☎2560–1	외과 GSBT	허민희	유방, 내분비외과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안종혁	유방, 내분비외과
	성형외과(PSBT)	기세휘	유방성형, 유방재건
	정신건강의학(PYBT)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이비인후과 ☎2420–1		장태영	수면무호흡, 비과, 코(성형),알레르기
		김규성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김영효	알레르기비염, 코골이및수면무호흡, 비중격절환, 축농증,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최정석	해외연수 2018.9.1 ~ 2019.8.31
		김현지	어지럼, 난청, 중이염, 이명, 보청기, 편도
		김지원	피타 편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이비인후과,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임상약리학과 ☎1167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조상헌	임상약리/약동분석
재활의학과 ☎2480–1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박찬혁	뇌신경재활, 일반재활
정신건강의학과 ☎3880		이정섭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언어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정신장애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 자살예방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맹세리	성인, 소아 정신건강
정형외과 ☎2380		문경호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김명구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강준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관절염, 종양, 골다공증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이동주	상지, 수부, 종양, 관절염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진료과		교 수	세부전공
정형외과 ☎2380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전윤상	어깨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치환술,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어깨 탈구 및 스포츠 손상), 주관절, 슬관절
		박준성	무릎, 어깨
직업환경의학과 ☎2861		임종한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엽제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보건관리
		김환철	해외연수 2018.9.1 ~ 2019.8.31
		이상윤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평가
척추센터 (SCC) ☎2619	정형외과(OSSC)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신경외과 (NSSC)	윤승환	척추,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류달성	척추,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재활의학과(RMSC)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치과 ☎2470		김일규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조현영	구강외과
		최지영	교정과
통증센터 ☎3921		김병건	통증치료
		김나은	통증치료
		백지선	통증치료
폐암센터 ☎3890	호흡기내과	류정선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흉부외과	윤용한	폐종양
		김영삼	폐종양
피부과 ☎2230		최광성	모발, 모발이식, 조갑질환
		신정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알러지,백 반증, 기타자가면역 피부질환, 여드름, 홍조
		변지원	여드름, 피부노화,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과 전반적인질환
핵의학과 ☎3160		현인영	동위원소치료
		이민경	동위원소치료
혈관외과 ☎2166	외과(GSVC)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고 진	일반외과, 혈관이식외과
	흉부외과 (CSVC)	백완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혈액종양내과 ☎2199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완화의료
		임주한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박지선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호흡기내과 ☎2216,2217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류정선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남해성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김민정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박미화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임준혁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의학
흉부외과 ☎2280		백완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윤용한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김영삼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희귀유전 질환센터	소아청소년과	권영세	소아신경, 뇌전증
		이지은	소아내분비, 유전 및 유전성 대사질환
		양아름	뮤코다당증, 누난증후군, 프라다–윌리증후군, 엔젤만증후군, 터너증후군, 유전성대사질환,
	신경과	최석진	말초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재활의학과	정한영	발달지연, 근육병, 뇌성마비
	진단검사의학과	문연숙	세포유전

암진료 안내 (2019년 3월 3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소화기내과(소화기센터)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고원진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외과	신석환	위암, 소화기 외과
		허윤석	위암, 소화성궤양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대장암	소화기내과(소화기센터)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고원진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외과	최선근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항문암), 소화기외과, 대장항문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임주한	종양학, 혈액학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간암	소화기내과(소화기센터)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해외연수 2018.8.15 ~ 2019.8.14
	외과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췌외과, 이식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종양내과	임주한	종양학, 혈액학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췌담도계암	소화기내과(소화기센터)	이돈행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정석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담도질환, 담석질환, 췌장염
	외과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췌외과, 이식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임주한	종양학, 혈액학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류정선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김정수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 식도암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양내과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혈액암	혈액내과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갑상선암	내분비과	남문석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홍성빈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김소헌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외과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이비인후과	최정석	해외연수 2018. 9. 1 ~ 2019. 8. 31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갑상선암	핵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외과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종양학, 복강경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비뇨기암	비뇨의학과	박원희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이택	전립선, 종양, 결석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임주한	혈액학, 종양학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최정석	해외연수 2018. 9. 1 ~ 2019. 8. 31
	종양내과	임주한	혈액학, 종양학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종양스트레스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임파부종클리닉	재활의학과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피부암	피부과	최광성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신정현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변지원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피부미용, 피부노화, 흉터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임주한	혈액학, 종양학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뇌종양, 뇌신경외과, 안면경련, 3차 신경통
		박현선	뇌종양, 뇌암, 전이성 종양, 뇌동맥류, 안면경련,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척추종양	신경외과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척수, 디스크 질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연부육종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순	골종양,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이동주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종양내과	임주한	혈액학, 종양학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김헌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 암코디네이터

- 상담가능시간 : 월~금요일 08:00 ~ 17:00 (토· 일· 공휴일 : 휴무)
- 폐암 (032) 890 – 3892 • 유방암·갑상선암 (032) 890 – 2562
- 위암 (032) 890 – 3767 • 대장암 (032) 890 – 2675
- 간· 담도·췌장암 (032) 890 – 3768 • 부인암·뇌척추종양 (032) 890 – 3961
- 두경부암·내분비계종양 (032) 890 – 3844 • 비뇨기계암 (032) 890 – 6300
- 혈액암 (032) 890 – 3638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인천·경기지역 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201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가 직접 경험한 병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전반적 평가 분야 전국 2위,
전 분야 전국 상급종합병원
Top 3 안에 들었습니다.

간호사 서비스

1	인하대병원	93.23
2	순천향대 부천병원	92.02
3	고려대 안산병원	90.40
4	분당서울대병원	89.96
5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9.11
6	아주대병원	88.35
7	길병원	85.76
8	한림대 성심병원	82.85

의사 서비스

1	인하대병원	85.83
2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4.46
3	순천향대 부천병원	84.18
4	아주대병원	82.95
5	고려대 안산병원	80.99
6	분당서울대병원	79.84
7	길병원	76.83
8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76.19

투약 및 치료 과정

1	인하대병원	87.06
2	순천향대 부천병원	84.83
3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3.76
4	아주대병원	82.31
5	고려대 안산병원	81.23
6	분당서울대병원	80.95
7	길병원	80.43
8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76.39

병원 환경

1	인하대병원	90.58
2	분당서울대병원	89.29
3	순천향대 부천병원	88.30
4	아주대병원	85.48
5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3.90
6	고려대 안산병원	82.31
7	길병원	81.71
8	한림대 성심병원	77.56

환자 권리 보장

1	인하대병원	86.97
2	순천향대 부천병원	82.97
3	아주대병원	81.02
4	고려대 안산병원	81.00
5	분당서울대병원	80.49
6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79.92
7	길병원	78.41
8	한림대 성심병원	76.48

전반적인 평가

1	인하대병원	89.07
2	순천향대 부천병원	87.75
3	분당서울대병원	86.73
4	아주대병원	84.34
5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3.70
6	길병원	80.34
7	고려대 안산병원	80.06
8	한림대 성심병원	75.85

인천·경기 상급종합병원 총 8곳

〈표〉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 기준 평가 결과표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